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2010 국제어린이창작워크샵

International Children's Creative Workshop

2010 국제 어린이 창작워크샵에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4년, 아시아의 문화가 모이고 하나되어 새롭게 뻗어나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 건립됩니다. [빛의 숲]의 개념을 좇아 만들어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예술가들이 모여 실험, 창작, 연구, 교육, 교류 등 중추기능을 수행하며 문화에너지를 뿜어내는 문화발전소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집결된 문화적 창의성이 이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당 내 어린이 문화원은 어린이들의 풍부한 감성과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획일적이지 않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환경을 제공합니다.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험하는 장인 동시에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확산시키는 문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워크샵 프로그램은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나가는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 사이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래친구들과의 소통은 사회성을 발달시키기에 적합합니다.

보다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국제 공모전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여러 작가들의 어린이들을 위한 기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연과 기술, 언어와 그림, 어른과 어린이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리들은 하나로 어우러져 어린이들의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은 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보고, 듣고, 만지고, 묻고 싶은데 그럴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이 학원을 전전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이, 궁금한 것이,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어린이 문화원은 빛이 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에 의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세상을 만나는 창이 되고 햇살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집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

참여방법: kidworkshop@gmail.com으로 신청

(어린이 이름, 학년, 연락처, 신청항목 기재)

문의처 : 02.3277.3899 어린이워크숍 담당자



Power of Word, Power of Pictures, Power of Creation Tajima Shinji & Tajima Kazuko (Japan)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꿈은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 스스로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인생의 여정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인지

7월3일 2:00pm
 7월4일 2:00pm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복합캠퍼스 323호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타지마 신지: 동화책 작가, 워크샵 전문 작가
UNESCO를 비롯하여 전세계 교육기관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 중

2 <mark>바람 땡, 자연놀이</mark> 꿈그리는 & 정은혜

자연(自然)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도시에서 자연을 즐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을 발견하고 느끼며 이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햇살과 바람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을 경험하고 풀잎, 꽃잎과 함께 놀이를 만들어 가며 즐거운 자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7월9일 9:30am7월10일 9:30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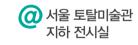
광주 의재미술관 마당 & 세미나실



꿈그리는 & 정은혜: 커뮤니티 아티스트 그룹, 미술치료가 어린이와 함께 다양한 워크샵을 진행하며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주로 함

3 문제아: 문제와 해결을 제 손에 쥔 아이들 통합문화예술교육연구소 넘나들이

어른들이 그렇듯 어린이들도 자신만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할까요?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 입니다. 이 과정은 어린이들에게 타인이 되어보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린이들은 워크샵을 통해 자신의 문제와 그에 대한 건강한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17일 2:00pm





넘나들이: 연기자, 디자이너,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된 그룹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Rebot Roboot: Children re—imagine the future of robotics James Powderly (USA)

어린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디지털 기술은 학습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분별하게 어린이들을 현혹하기도 하는 디지털 기술을 잘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어린이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어 보며 꿈꾸던 것을 현실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7월19일 10:00am 7월20일 10:00am 7월21일 10:00am 7월22일 10:00am

세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복합캠퍼스 3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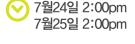


제임스 파우더리: 미디어 아티스트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 아트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 아트 그룹의 창립자, 현 홍익대학교 교수

5 Playces: Making Places where We Can Play Kimchi and Chips (Korea+UK)

어린이들에겐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손도 씻어야 하고 양치도 해야하며 수학문제도 풀어야 하고 게임은 하루 한시간만 해야합니다. 모두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만들어 준 규칙들이지요. 이 워크샵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이들의 세계에 초대된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만든 세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②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제 1 전시관



김치 앤 칩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예술을 만들기 위한 작품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

